

One Brand Matching

Nagra

PL-L · PMA · CDC

중량감 · 안정감 · 추진력 · 직선성 등을 드러내는 데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현대 음향이 요구하는 기민한 순발력, 뛰어난 과도특성, 박진감, 강력한 순간 폭발력 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장감 넘치게 수용하는 모습은 새로운 나그라 조합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었다.



정연함과 당당함의 조화를 노래하다!

글 | 박성수

나그라를 정식으로 다루는 글이라면, 정밀한 계측기를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결례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상투적인 이야기를 재탕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그라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하이엔드 오디오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과 음향의 정합성이다. 견고함·정밀성·안정감 등을 암시하고 있는 나그라 특유의 정교한 디자인은 음향의 통일성·집중력·구동력과 일대일로 치환해도 좋을 정도로 이들이 추구하는 음향 스타일을 명쾌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교함과 견고함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 나그라의 음향 철학은 필자가 본지 2008년 5월호에 기고한 CDC CD 플레이어에 대한 시청 리포트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CDC CD 플레이어·PMA 파워 앰프 세트를 가지고 랑세 오디오의 No.4.1 스피커를 구동한 시스템에 대한 시청 리포트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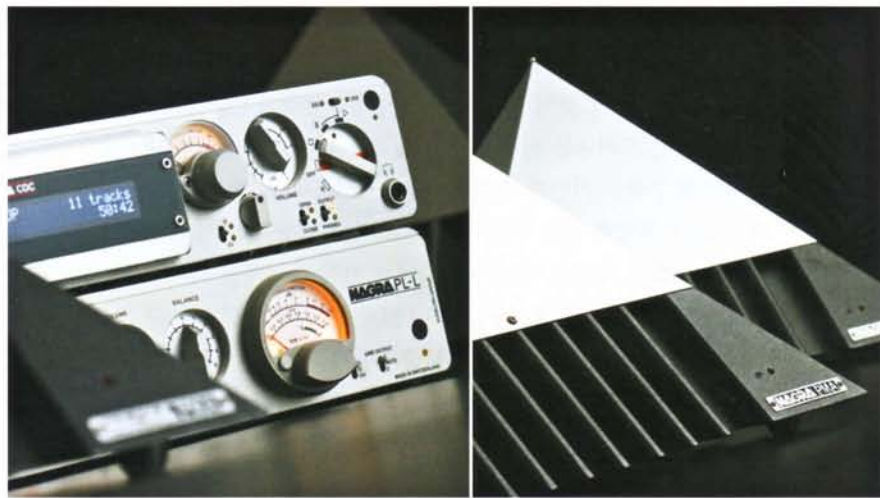
“이 조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거침없이 음향을 방사하는 듯하지만 절제력과 집중력이 살아 있는 탄력 넘치는 음향 조형 능력, 그리고 거시구도와 세부구도 사이의 정연한 균형을 이끌어 내는 정합성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한편에서는 작지 않은 스케일을 구현하는 확고한 테두리와 청명한 분위기로 채색된 음향 무대를 연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 세부 표정 하나하나를 명쾌하게 제시하는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CDC와 PMA는 나그라의 기기들인 동시에, 최근 오디오 강국의 이미지를 만천하에 선양하고 있는 스위스 오디오의 당당한 일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생동감이 넘치는 정교한 음향 시계’를 추구하는 스위스 오디오의 일원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CDC·PMA 세트를 다루고 있는 이 글이 사실상 나그라 윈 브랜드 시스템에 대한 시청 리포트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지난 5월호에 기고했던 시스템 구성과 비교해 보면, 이번에 필자가 시청한 시

스템은 CDC·PMA 조합에 PL-L 프리앰프를 추가하고, 스피커 또한 랑세 오디오의 No.4.1에서 피크 컨설트의 프린세스로 교체한 새로운 나그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CDC 플레이어, PL-L 프리앰프, PMA 파워 앰프 하나 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CDC·PMA 조합에 프리앰프인 PL-L을 추가하면서 나타나는 음향 변화, 그리고 지면이 허락하는 한, 나그라 시스템으로 구동하는 스피커가 랑세 오디오에서 피크 컨설트로 바뀌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음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시청한 나그라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기기는 단순성·효율성·합리성을 중시하는 나그라의 설계 철학을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 프리앰프 겸용 플레이어인 CDC이다. 최근 하이엔드 오디오를 지배하는 화두가 아날로그 재생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시류를 거스르는 기기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CDC는 프리앰프와 플레이어의 조작 기능을 절묘하게 통합한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디자인의 세련성, 메커니즘의 정밀성과 안정성, 음향의 완성도 등을 소형화·단순화·집약화·고성능화라는 설계 이념으로 말끔하게 수렴해 낸, CD 전성시대를 대표하는 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CDC는 포터블 플레이어를 연상케 하는 앙증맞은 디자인 때문에, 자칫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기기이다. 그러나 디자인·기술 내용·음향 등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얽잡아 볼 수 없는 기기가 바로 CDC이다. 지난 5월에 기고한 시청 리포트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리콘 서스펜션으로 플로팅한 필립스의 프로 2M 메커니즘을 나그라 모노블록 트레이라는 드로어에 수납하여, 트레이를 로딩할 때 메커니즘 전체가 움직이는 독특한 설계를 채용하고 있으며, 지터를 측정 한계 이하로 억제하는 퀴즈 발진 회로를 채택한 레퍼런스 클록 제네레이션과 버브라운 DAC 칩 2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아날로그 출력으로는 언밸런스 와 밸런스 출력(아날로그), 디지털 출력으로는 AES·S/PDIF·Toslink 등을 갖추고 있는 기기가 바로 C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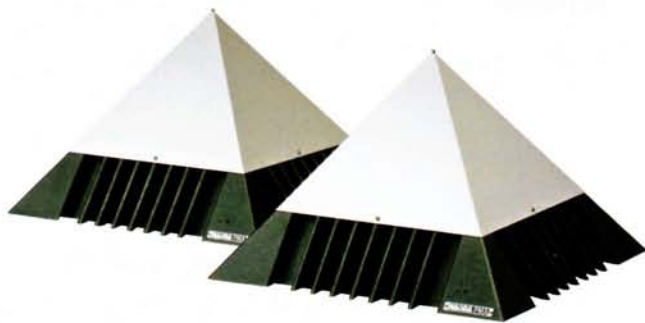
이다.

다음으로 PL-L을 살펴보면, CDC와 마찬가지로 양증맞지만, 견고한 느낌을 주는 컴팩트한 새시를 채용한 이 프리앰프는 출시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그라를 대표하는 진공관 프리앰프이다. 1997년 발표된 배터리 구동 방식의 진공관 프리앰프를 개량하여 2000년에 내놓은 PL-L 또한 12AX7과 12AT7을 채용한 진공관 라인앰프로서, 전작인 PL-P와 비교해 보면, 포노단이 생략되어 있고, 전원부 또한 배터리 구동 방식을 포기하고 소형 스위칭 전원 모듈을 채용한 독립 전원 모듈로 만든 DC 전압을 앰프 내부에서 진공관 구동에 맞는 전압으로 바꾸어 주는 전압 컨버터를 메인 전원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앰프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기는 2005년 등장한 PMA 모노블록 파워 앰프이다. 풀 밸런스 회로와 MOSFET를 증폭 소자로 채택하여 8Ω 임피던스에서 채널당 200W의 출력을 이끌어 내는 PMA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디자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독특한 디자인은 시각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냉각 팬을 사용하지 않고 파워 앰프의 베이스를 방열판으로 활용하는 설계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라미드 모양의 디자인이 탄생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안정성·기능성·미감 등을 동시에 충족시킨 앰프가 바로 PMA인 셈인데, 이쯤 되면 나그라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 시청에서 CDC·PL-L·PMA·프린세스 조합은 어떤 음향을 들려주었는가? 결론만 제시하면, 새로운 나그라 조합에서는 진공관 프리앰프인 PL-L을 투입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피크 컨설트 프린세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음향 무대를 딱 채우는 풍성하고 단단한 음향 몸체와 장쾌한 다이내믹 표현을 전면에서 부각하면서, 중량감과 안정감을 살려내는 저음역, 음악의 표정을 한층 분명하고 풍부하게 제시하는 당당한 중음역, 절제된 듯하지만 음악 표현 대역 내에서 개방감이 넘치는 음향을 이끌어 내는 고음역 등을 전향적인 발성 속에 용해하는 모습이 새로운 나그라 조합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심도가 다소 약한 까닭에 음악 표현의 입체감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쉽지만, 중량감·안정감·추진력·직선성 등을 드러내는 데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면서도, 현대 음향이 요구하는 기민한 순발력, 뛰어난 과도특성, 박진감, 강력한 순간 폭발력 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장감 넘치게 수용하는 모습은 새로운 나그라 조합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었다. 이렇게 보면, CDC·PL-L·PMA·프린세스 등으로 구성된 나그라의 원 브랜드 조합은 중후함과 기민함, 안정감과 추진력, 풍성함과 견고함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정연함과 당당함이 공존하는 음향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A**

· 수입원 : 캄피아 (02)717-4274



PMA 파워 앰프

- 가격 : 수입원 문의
- 클래스 : 클래스AB
- 실효 출력 : 200W(8Ω)
- 주파수 대역 : 10Hz~70kHz(+0, -3dB)
- S/N비 : 104dB
- THD+N : 0.09% 이하
- 입력 임피던스 : 100kΩ 이상
- 크기(WHD) : 38x30x38cm
- 무게 : 10kg



CDC CD 플레이어

- 가격 : 수입원 문의
- 재생 포맷 : CD, CD-R/RW
- D/A 컨버터 : 24비트
- 오버샘플링 : 8x(352.8kHz)
- 대역폭 : 20Hz~20kHz
- S/N비 : 108dB 이상
- THD+N : 0.003% 이하
- 채널 분리도 : 90dB
- 아날로그 출력 : XLR, RCA
- 출력 레벨 : 1 또는 3.5V
- 디지털 출력 : AES, S/PDIF, Toslink
- 소비 전력 : 6W, 12W(최대)
- 크기(WHD) : 31x7.6x25.4cm
- 무게 : 4kg

PL-L 프리앰프

- 가격 : 수입원 문의
- 사용 진공관 : 12AX7(2), 12AT7(1)
- 입력 임피던스 : 110kΩ 이상
- 출력 임피던스 : 60Ω
- S/N비 : 100dB
- 주파수 대역 : 10Hz~100kHz (+0, -1dB)
- 디스토션 : 0.01% 이하
- 크기(WHD) : 31x7.6x25.4
- 무게 : 3.2kg